

이승은 | 연구원 (제 6930)

- 주요 뉴스: 미국 8월 비농업고용 예상치 하회했으나 7월보다 나아졌다는 평가
 - 뉴욕연은 총재, 지금은 금리 인하가 적절. 월터 이사는 빅컷 가능성 시사
 - 유로존, 예상보다 낮은 2분기 GDP 수정치 발표
 - 미국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입막음 돈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
- 국제금융시장: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엇갈리며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
 - 주가 하락[-1.73%], 달러화 강보합[+0.1%], 금리 하락[-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미 고용지표 발표 후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주가 약세에 동반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큰 변동성을 보이다 상승
유로화 가치는 0.2% 하락, 엔화 가치는 0.8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하락
독일도 미국의 국채시장에 연동해 4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종가 1335.89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38.24원, 0.1% 하락). 한국 CDS 상승

		9/6일	9/5일	전일대비			9/6일	9/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408.4	5,503.4	-1.73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1%	3.73%	-2bp
	유럽	506.56	512.05	-1.07%		독일	2.17%	2.21%	-4bp
	중국	2,766	2,788	-0.81%		영국	3.89%	3.92%	-3bp
	일본	36,391	36,657	-0.72%	CDS 5y	한국	33.1	33.0	+0bp
	한국	2,544.3	2,575.5	-1.21%		중국	60.8	59.6	+1bp
환율	달러지수	101.2	101.1	0.08%	위험 지표	EMBI+	-	414.0	-
	유로화	1.1084	1.1111	-0.24%		VIX	22.4	19.9	12.46%
	엔화	142.3	143.45	0.80%		WTI유	67.7	69.2	-2.14%
	위안화	7.098	7.0887	-0.13%	원자재	구리	401.5	407.8	-1.55%
	원화	1,339.9	1,333.5	-0.48%		금	2497.4	2516.8	-0.7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8월 비농업고용 예상치 하회했으나 7월보다 나아졌다는 평가

- 8월 비농업고용자 수는 +14.2만명으로 예상(+16.5만명)을 하회. 7월 수치는 +11.4만명에서 +8.9만명으로, 6월 수치는 +17.9만명에서 +11.8만명으로 각각 크게 하향 조정. 실업률은 4.2%로 전월(4.3%)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예상(4.2%)과는 부합
-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대비 0.4% 증가하여 예상(0.3%)을 상회. 완만한 임금 증가와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감안하면, 9월 연준의 빅컷(50bp 인하)을 정당화할 만큼 고용이 약하지는 않다는 평가
- CME FedWatch Tool은 9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43%로 하락했으며,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57%로 상승
- Evercore ISI는 50bp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, 연준의 관성적인 움직임을 고려하면 8월 고용 데이터는 50bp 인하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9월 25bp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
- Capital Economics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로 빠지기 보다는 연착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망과 여전히 일치한다고 평가하는 등 경기에 대해서 낙관론을 시사
- Principal Asset Management는 실업률 하락과 근로시간 증가는 좋은 소식이지만, 이미 약세였던 7월 수치가 더욱 하향 조정된 것과 완만한 8월 고용은 경기침체의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뉴욕연은 총재, 지금은 금리 인하가 적절한 상황. 월러 이사는 빅컷 가능성 시사

-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가 안정 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2%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고용 수치는 노동시장의 냉각을 나타낸다고 평가.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제약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
- 한편 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하는 등 향후 데이터가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

■ 유로존, 예상보다 낮은 2분기 GDP 수정치 발표

- 유로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.2%로, 전월 예비치(0.3%)와 1분기 성장률(0.3%)을 하회. 무역과 정부지출은 성장했으나, 투자는 전분기에 이어 감소하는 모습. 유로존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상황

■ 미국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, 입막음 돈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

- 머첸 판사는 당초 9월 18일 내려질 예정이었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선고를 대선 이후인 11월 26일로 연기.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형량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

■ 미국은 이스라엘-하마스 휴전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

- 이스라엘-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, 미국 브라운 합참의장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한다고 발언. 광범위한 지역분쟁으로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입장

■ 독일 7월 산업생산,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

-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.4% 감소. 위축의 주요 동인은 자동차 부문의 불황이었지만,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세가 관측. 운송장비에 대한 신규 수주는 2.9% 증가했으나, 소비재 신규 수주는 5.8% 감소.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 급등, 중국 생산업체와의 경쟁, 고금리로 인한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분석

■ 중국 주식,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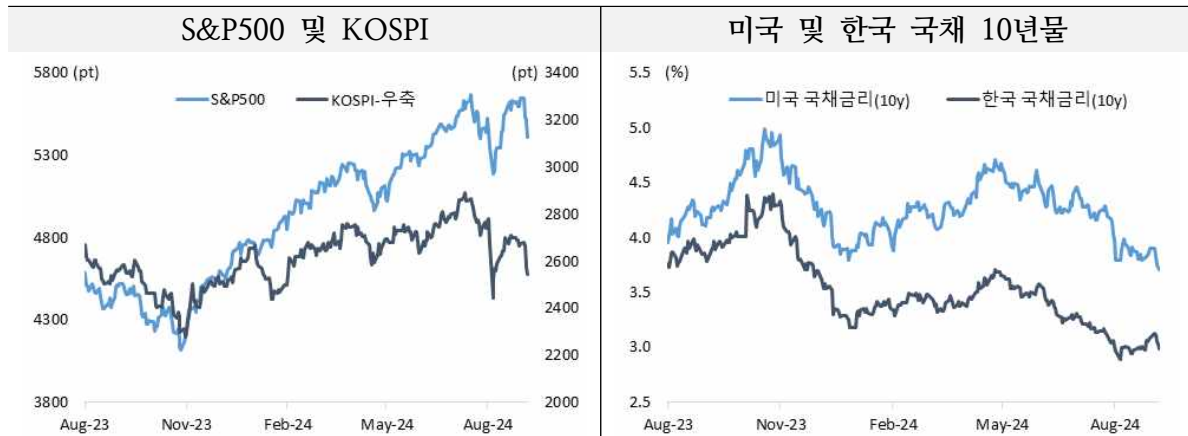
- 금요일 CSI 300 지수는 0.4% 하락하여 지난 2월 초 수준까지 떨어지며 하락폭을 확대. 투자심리를 개선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체 국면을 이어가며 울들어 현재까지 5.4% 하락했으며, 지난 12개월 동안은 13.7% 하락

주요 경제 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CPI 발표(9/11일)
- ECB 9월 통화정책회의(9/12일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7, E-mail selee@kcif.or.kr